

전남 동부권



여수시 월내동 국가산업단지에서 모도동을 경유해 광양시 증마동까지 연결되는 '이순신 대교'(총 연장 9.58km).

광양시 인구 15만 돌파

광양시 인구가 15만명을 돌파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2000여명 내외의 인구증가세를 보인 결과 9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된 인구가 15만2777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3월 인구 14만을 넘

어서 이후 3년8개월여 만에 1만명이 증가했다. 시는 인구증가 요인으로 최근 후관공장을 비롯한 포스코의 합성 천연가스사업을 비롯해 ▲4월연, 5코크, 5소결 신설 등 2014년까지 5조 5000억원 투자사업 유치 ▲철강, 환만-조선산업의 활발한 기업체 유치 ▲산업평화, 교육환경 개선노력

철강·항만산업 활발... 기업체 유입 2008년부터 매년 2000여명 증가세

등을 꼽았다. 그동안 시는 인구 15만명 달성을 통해 ▲명품 교육도시 기반구축 ▲주택공급 특별대책 추진 ▲경쟁력 있는 도시정주 인프라 구축 ▲관내 아파트, 원룸, 학교기숙사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광양시 주소갖기 운동 전개 등 4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모든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했다.

특히 시는 거주주 요건의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02년 전국 최초로 '교육환경개선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03년부터 성적제고, 교육기회 확대, 시설현대화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총 669억원을 투자해 명문 교육도시의 기반을 다져왔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이순신대교 국가가 관리 맡아야”

내년 임시개통 앞두고 재정 열악 지자체 관리비 걱정 여수·광양 상의 “안전문제 심각... 정부서 지원해야”

광양 국가산단과 여수 국가산단을 잇는 '이순신 대교'가 내년 5월 개 임시개통을 앞둔 가운데 대교 관리비를 해당 지자체가 떠안게 될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광양시와 여수시는 그동안 정부에 관리주체를 국가에서 맡아 줄 것을 건의했으나, '이순신 대교는 행정구역상 양 시의 간선도로'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따라 지역 상공인들까지 가세해 '이순신 대교' 관리 주체 변경을 강력 건의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여수 상공회의소와 광양 상공회의소는 이달 초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여수·광양지역 국회의원, 전남도에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이순신대교 포함)의 관리 주체를 국가에서 맡아 줄 것을 건의했다. 양 상의는 건의문에서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가 완성되면 관리주체

는 여수시와 광양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 도로가 지난 1967년과 1982년 각각 조성된 여수 국가산단과 광양 국가산단을 잇는 역할을 하는 만큼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상의는 "이순신 대교 초기 관리비는 50억원 가량, 노후화될 경우 100억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양 상의는 "여수 국가산단내 간선도로 관리만 해도 재정형편이 열악해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대형 화물차량의 대량 통행과 대형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까지 관리를 맡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양 상의는 "특히 국가가 여수·광양 국가산단내 기업들로부터 매년 수조원의 국세를 징수하고 있어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는 물론 산단내 간선도로까지 국가 관리가 합당하다"

고 덧붙였다. 이들 상의는 관리청이 여수시와 광양시로 된 국가산단내 간선도로 노선 '석창 사거리~월내~묘도~광양(이순신 대교포함)'과 '월내~낙포' 등 2구간도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여수산단내 도로는 여수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과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준비로 인해 여수산단로에 투자할 재원이 없는 실정이다. 여수산단은 국가산단으로서 매년 약 6조원의 국세를 징수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는 약 4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 만큼 정부의 지원과 협조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여수상공회의소 정병식 조사부장은 "이순신 대교가 양 시의 국가산단 국가산단 진입도로까지 관리를 맡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순신대교가 개통될 경우 막대한 교통량 증가로 산단도로의 안전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지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주암호 사랑 걷기'... 12일 복내면 생활체육공원

광주·전남 시·도민의 식수원인 주암호의 수질을 보전하고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주암호 사랑 걷기 대회'가 오는 12일 복내면 생활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사)자연환경지킴이(회장 임금식)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걷기대회는 복내면 주암호생태습지에서 기념식을 가진 후 ▲A코스(9km) B코스(6km)로 나눠 진행된다. A코스는 주암호 생태습지→복내면 동교리 외판마을→보성정보통신고등학교→주암호 천연잔디 축구장 구간이다.

B코스는 주암호 생태습지→보성정보통신고→복내면 동교리 외판마을→보성 정보통신고→주암호 천연잔디 축구장으로 되돌아오는 코시다. 또한 걷기대회 이후에는 한마당 큰잔치가 펼쳐지며, 부대행사로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환경사진 전시회도 열린다. 보성군 관계자는 "주암호의 맑은 물과 아름다운 단풍을 바라보며 가족, 연인과 함께 걷다 보면 생활에 지친 심신의 피로가 깨끗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선성근기자 sun@

여수박람회 조직위 일자리 늘린다

'엑스포 타운' 관리 인력 여수 현지인 채용 확대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현지 인력채용을 확대하는 등 지역 고용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9일 조직위에 따르면 지난 10월 '엑스포타운' 대행사인 (주)에이치티씨와 여수 한영대학교 산학협력 체결에 따라 한영대 관광과 학생 40여 명이 박람회 기간 동안 엑스포타운 운영인력으로 근무하게 된다. '엑스포 타운'은 24개동 1442세대(6600여명)가 숙박할 수 있는 아파트 주거단지로, 내년 3월부터 국내외 박

람회 봉사자들이 머물게 된다. 한영대 관광과 학생들은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엑스포 타운' 객실 프론트와 벨 데스크, 물자관리 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또한 조직위는 청소와 경비 등 시설관리 인력 270여명도 지역 인력으로 채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동석 조직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본격화된 조직위 인턴 직원도 현지인력으로 최대한 고려해 뽑아왔다"며 "현지인력 채용확대를 통해 지역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보성읍 5일장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탈바꿈

80년의 전통이 살아 있는 보성군 보성읍 5일 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탈바꿈된다. 보성군은 지난 8일 보성읍 5일시장 부지내에서 관내 기관단체장과 시장 임업 상인,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성읍 5일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기공식을 가졌다. 1930년 개장한 보성읍 5일시장은 그동안 지역내 거점 유통시설로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농·어촌의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쇠퇴의 길을 걸었다. /동부취재본부=선성근기자 sun@

진봉면사무소~거전리 해변길 10km

김제 바닷가 마실길 15일 개통

김제 바닷가에 자연과 농촌체험을 컨셉트한 마실길이 조성됐다. 김제시는 진봉면사무소에서 시작해 망해사~심포항~거전리 해변길에 이르는 '새만금 바람길'(총 10km) 개통식을 오는 15일 갖는다. '새만금 바람길'에는 전선포, 봉수대, 망해사, 심포항, 거전갯벌이 있다. 또 새만금 사업현장과 드넓은 김제평야도 한눈에 들어온다. 제1코스는 진봉면 고사마을을 출발해 삼국시대부터 포구로 사용됐던 전선포와 백제시대(642년)에 창건한 망해사를 잇는 '과거의 길'로, 드넓

게 펼쳐진 갯벌이 장관을 이룬다. 제2코스는 망해사에서 다양한 해산물 맛보는 심포항을 잇는 '현재의 길'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평선과 수평선을 동시에 볼 수 있다. 제3코스는 심포항부터 봉수대를 거쳐 거전갯벌을 잇는 '미래의 길'로, 새만금 사업으로 드러난 간척지를 가장 넓게 볼 수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이들 3개 코스는 자연과 농촌체험을 컨셉트로 조성했다"며 "전 구간이 평탄하며 3시간가량이 걸린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동학농민 무장음성 무혈입성 재연

지난 8일 열린 고창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茂長起包) 기념제'와 '무장음성 축제'에서 주민들이 무장음성에 무혈 입성하는 역사적인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동학농민혁명 농민군의 발자취와 무장음성 무혈입성의 함성'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고창군 제공>

지난 8일 열린 고창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茂長起包) 기념제'와 '무장음성 축제'에서 주민들이 무장음성에 무혈 입성하는 역사적인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동학농민혁명 농민군의 발자취와 무장음성 무혈입성의 함성'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고창군 제공>

전주시내버스 수능생 불편 최소화 정상운행

노사협상... 승무거부 철회

전주 시내버스 노사가 협상을 재개하면서 운행 정상화 수능시험 당일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전주 제일여객 노조가 9일 잠정적으로 승무 거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승무거부를 철회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여금과 관련한 사측과의 협상에서 진전이 없으면 11일부터 승무거부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8일에는 전일여객과 신성여객, 호남고속 노사가 '2011년 일급단체협상'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민노총 운수노조가 두달 넘게 진행하던 준비투쟁을 철회했다. 민노총 관계자는 "사측이 일단협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약속해 준비투쟁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협상에서 진전이 없으면 11일부터 승무거부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8일에는 전일여객과 신성여객, 호남고속 노사가 '2011년 일급단체협상'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민노총 운수노조가 두달 넘게 진행하던 준비투쟁을 철회했다. 민노총 관계자는 "사측이 일단협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약속해 준비투쟁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전주 내년 7월까지 특수촬영스튜디오 건립

전주시가 내년 7월까지 삼림동 전주 영화종합촬영소에 '특수촬영 스튜디오'를 만들 계획이다. 이 스튜디오는 795㎡ 규모의 실내 스튜디오와 560㎡의 분장실을 포함한 부대시설로 구성된다. 실내 스튜디오는 최근 촬영 수요가 늘고 있는 병원, 경찰서와 같은 특별한 시설을 세트장으로 꾸민 것이다.

시는 실내 스튜디오, 야외 세트장, 분장실 등으로 구성된 5만6800㎡ 규모의 영화 종합촬영소와 화면을 편집하는 영화제작소, 영화와 드라마의 소리를 편집하는 '음향 마스터링 스튜디오'를 모두 갖추고 있어 영화 촬영이 줄을 잇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군산 은파 호수공원 지하터널 공사 논란

시의회 "효율성·경제성 떨어진다" 제동

군산시가 날로 급증하는 교통량 완화를 위해 호수공원을 가로지르는 지하터널 건설을 검토하고 있어 효율성과 경제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군산시는 최근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은파 호수공원 진입로를 확장, 연결하는 과정에서 교통량을 완화하기 위해 은파호수공원 밑으로 지하터널을 파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비 220여억원을 들여 지곡동 해나지오 아파트에서 은파공원내 자산가든까지 진입로를 만들고, 이어 이 도로를 공단쪽으로 연결하기 위해 은파호수에 지하 터널을 파는 작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군산 국가산단의 활성화

가중되고 있다. 시의회는 "도로 개설에 따른 효율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친환경적인 수변공원 밑으로 터널을 판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며 "물의 압력이 높아 다른 지하터널보다 기술성도 요구돼 경제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전북 내년 R&D 사업에 4100억 투입

전북도가 지역 주도의 창조적 기술 발전을 위해 R&D(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전북도는 지난 8일 도청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한 과학기술위원회를 열고 내년에 4100여억 원을 투입해 4대 추진분야·8대 중점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분야에 대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950억 원, 30.2%가 증가한 것이다. 4대 추진분야는 ▲연구개발지원 ▲인력양성 ▲지역 연구거점 활성화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등으로 총 165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뉴스 브리핑

익산시-세종대 국가식품 클러스터 협력 협약

익산시는 세종대학교(총장 박우희)와 8일 세종대 집현관에서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두 기관은 동반자적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학·관협력체계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고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R&D중심의 식품클러스터' 수요에 맞는 다양한 사업 발굴은 물론 산학관 협

력을 통해 대학과 식품클러스터 발전에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식품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 활동에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식품산업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교육·문화·관광 등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각 분야의 연구 및 교류활동 증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희기자 ryu0418@

남원시, 일 히오키시와 도예산업 협력

남원시 정책교류단(단장 김철만 부시장)은 자매도시인 일본 가고시마현 히오키시에서 지난 3~6일 열린 '사쓰마(薩摩) 도요지 축제'에 초청돼 도예 민간교류와 도예산업 협력 등을 논의했다. 12월 개관 예정인 '남원 심수관

도예전시관' 개관에 따른 히오키시와 심수관(家)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 받기도 했다. 특히 남원시 시립국악단은 축제장에서 사물놀이와 부채춤 등을 선보이며 심명남 한마당을 펼쳤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김제시의회 공무원 사회 자기반성 촉구

김제시의회 나병문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153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공무원사회의 솔직한 자기반성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나 의원은 "지역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신속한 국민체

육센터가 주목구사실 행정으로 인해 시 체육환경과 맞지않는 종목이 선정돼 예산낭비와 함께 관리감독 부실로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데도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다"고 질타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순창 이정 전이수산 대표 수산 신지식인에

순창군 적성면에서 '메주가꾸 먹인 장어'를 양식하는 이정(52) 전이수산 대표가 지난 7일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의 '2011년도 수산 신지식인'에서 '우수자'로 선정됐다. 이 대표는 '수산 신지식인' 선정 최종발표에서 '메주사료를 먹

인 고품질 민물장어 양식'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대표는 "메주를 민물장어 양식사료에 섞어 먹인 결과 민물장어 5마리 기준 100t 생산시 매년 사료값 7200만원을 절감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